
 금융위원회	<div>한글나라 대한민국</div> <div>보도설명</div>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10.28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담 당 자	남 명 호 사무관 (02-2100-2963)	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(02-3145-7460)		권 재 순 팀 장 (02-3145-7474)	
	보험연구원 부원장 조 재 린(02-3775-9034)		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 정 성 희(02-3775-9024)	

**제 목 :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(10.27)에서 논의된**  
**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**  
**보험료는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~50% 인하**  
**[착한실손 대비 약 10%인하] 효과가 발생합니다.**  
**[「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」 공청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]**

-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(10.27일, 마포 프론트원)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·논의하게 된 배경은
-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,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
  -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.
-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·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,
- ①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·연령별,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, 대체적으로 **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~50%** (착한실손 대비 약 10%) **인하 효과**가 발생할 것으로 **예상**됩니다.

< 예 시 >

구분		개편안 (20/30) <sup>1)</sup>	착한실손 (10/20(특약 30)) <sup>1)</sup>	표준화실손 (10/10) <sup>1)</sup>
A보험사 (40세, 남자 기준)	月 영업보험료	12,067	13,453	23,958
	개편안 대비 보험료 인하폭	-	<b>-10.3%<sup>2)</sup></b>	<b>-49.6%</b>

1) 괄호( )안은 급여/비급여의 자기부담률 %

2) 개선방안에 따른 경우, 현재 착한실손 대비 지급보험금 변동효과 분석 결과

- ②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,
- 대부분은 無사고자(할인등급)이므로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할인·할증단계	9단계(안)		5단계(안)	
	할인	할증	할인	할증
전체 가입자 대비	71.5%	<b>17.1%</b>	71.5%	<b>2.0%</b>

- ③ 또한,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‘급여’가 아닌 非필수·선택적 의료 성격의 ‘비급여’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

-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\*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.

\* 산정특례, 장기요양등급 등 객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적용제외 대상자 선정 검토

- ④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.

\* [기준] 1회당 30만원(급여,비급여 모두 포함)

→ [개편안] 급여 1회당 20만원 + 비급여 1회당 20만원 = 1회당 40만원

□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,

- 11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·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